

대장경 판각 강화? 남해?

“대장경 판각 남해가 확실, 복원 서둘러야”

국회사 세미나, 유적 발굴 이어 관광자원화까지 모색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고려 팔만대장경. 흔히 우리들은 교과서를 통해 팔만대장경이 전란 중 남해에서 벌목한 나무를 뗏목 형식으로 수송해 강화에서 판각됐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전면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에서 대장경이 판각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 스님)과 남해군(군수 박영업)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유적지 원형복원을 위한 정책개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3년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일대에서 고려대장경 판각과 관련된 건물지와 유물들이 대거 발굴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책 세미나다.

“강화와 남해에서 나눠 판각”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화 선원사 판각설을 최초로 주장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수정해 남해 판각설을 인정했으며, 그동안 남해판각설을 꾸준히 주

장해 온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이 남해 판각의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미영 남해군 조사연구팀장과 이원태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실장이 발굴조사의 과제와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학계 강화 판각 통설 뒤집어

2013 발굴조사 이어 복원

남해 관광 요소 가치도 부각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먼저 “40년 전 고려대장경 강화 선원사 판각설을 최초 주장했지만 이후 밝혀진 연구성과를 수용해 가설을 수정했다”며 “강화와 남해에서 나눠 대장경을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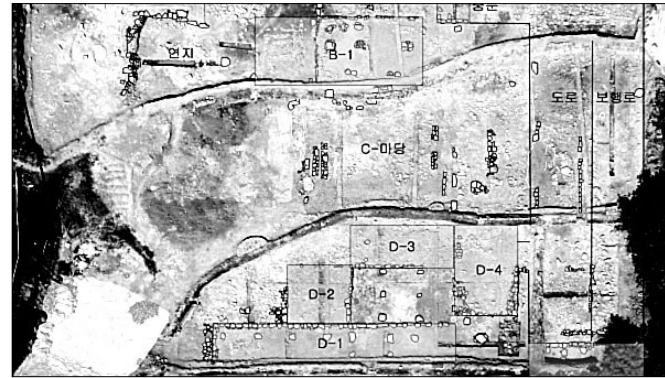
문명대교수는 가설의 근거로 당시 무신정권이 강화에 고려대장도감, 남해에 분사대장도감의 기구를 설치한 점을 들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시발굴 조사가 진행된 남해 선원사지 항공사진 모습

문명대교수는 “남해 분사대장도감 운영은 정안에게 일임했으며 전기(前期)는 강화에서, 후기(後期)는 정안이 남해에서 고려대장경을 판각했다”고 밝혔다.

“아니다, 남해에서 모두 판각”

여기에 대해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은 “고려대장도감이 설치됐던 곳이 남해이며, 모든 판각이 남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대장경판을 조사한 결과 대장도감 간행본과 분사대장도감 간행본이 섞

여였을 뿐만 아니라 대장도감, 분사대장도감 간행본 모두 같은 사람이 새긴 것이 있다”며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이 동일한 장소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분사대장도감에서 찍어낸 (중경목) 권27 ‘고려국 분사 남해대장도감’을 근거로 “남해에 설치된 것은 분사대장도감이 아닌 지방판아를 통솔하는 고려국 분사가 설치된 곳으로, 대장도감 또한 이곳에 위치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진주 일대는 무신정권 최

중헌 이래 최씨들의 식읍지였으며 최이의 뜻에 따라 그의 처남인 정안이 남해로 내려가 판각작업을 주도했다”며 “조선 태조가 ‘강화 선원사에서 옮겨온 대장경을 보려 용산강에 행차했다’는 기록으로 선원사 판각설이 잘못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유적 복원 및 관광자원화 나서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장경 판각지 복원에 대한 필요성과 관광자원화 가능성도 논의됐다.

김미영 조사연구팀장은 “남해 선원사지

에서 출토된 막새기와 등 유구의 연대를 보면 대장경 판각기인 13세기 전·중반”이라며 “남해에서 판각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원태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고려대장경 판각지와 삼별초 주둔지 등의 연장선에 국산극복기념관과 호국평화 공원을 조성하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며 “남해 판각지를 남해의 금산, 상주해수욕장, 첨마대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며 시너지효과를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관한 고산문화재단 이사장 영담 스님은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유적지 원형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남해군 고려대장경 판각유적지의 조속한 원형 복원으로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남해 화방사 주지)은 “1994년 영담 스님이 최초 발굴을 진행한 이래, 고려대장경 판각지 유적을 찾기 위한 정밀시굴조사와 발굴사업을 이어왔다. 고려대장경 판각 남해유적지 복원사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무도’ 진면목 펼친다

경주 골굴사, 25일 학술세미나·26일 시연 및 산사음악회

불교의 대표적인 전통무예인 선무도(禪武道)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선무도 총본산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10월 25일 오후 2시 경주 골굴사에서 선무도 세속포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허익구 경남과학기술대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쟁계사승가 대학 강사 지광 스님, 장성재 동국대 인문대 교수, 오경후 동국대 겸임교수, 강석근 동국대 파라미타칼라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불교전통무예로서의 선무도의 위상과 골굴사와 선무도의 관계 등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제12회 ‘화랑과 승군의 후예’ 전통무예대회와 골굴사 중창불사 25주년 기념 원효성사 화엄종 타종식도 잇따라 열린다.

전통무예대회는 국내외 무예가들이 참여하는 화려한 무대로 꾸며진다. 선무도 택견 기천 24반무예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무술이 소개되며,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해외 무술인들도 시연에 동참한다. 또 LMB싱어즈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도 진행된다.

한편, 불교금강영관 선무도 전수자인 창간 20주년



골굴사 스님들의 선무도 시연 장면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선무도를 활용한 템플스테이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985년 서울에 ‘선무도 대금강문’ 포교당을 열고 선무도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선무도 또는 불무도로 알려진 불교금강영관(佛敎金剛靈觀)은 한국불교 전통무예이자 수행법으로 신라시대 화랑들이 심신 단련법으로 활용한 것이다.

호국불교사상과 결합해 불교금강영관은 임진왜란 당시 승군(僧軍)의 기본 무술로도 채택됐다.

조선시대 맥이 끊기다시피했으나 부산 범어사 청련암 양익 스님(1934~2006)이 복원했으며 제자 중 한명인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이 맥을 잇고 있다. 노덕현 기자

승단 최고직, ‘국통’ 상징 비석 발굴

삼척 흥전리사지 시굴조사 결과, 대규모 건물지 확인

신라시대 승단 최고직인 ‘국통(國統)’이란 글자가 새겨진 비석 조각이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발견됐다. 또 이 절터가 고려시대까지 번성했음을 보여주는 흔적도 드러났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10월 7일 삼척 흥전리사지 현장에서 현장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전국 중요 폐사지 시발굴조사사업’의 일환으로 8월부터 흥전리사지 석탑 복원과 사역 확인 등 시굴조사를 시행했다.

흥전리사지에는 그동안 통일신라석탑 양식을 띠지만 규모가 큰 3층 기단의 삼층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7호)가 흩어져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5층 이상의 건물지가 새롭게 확인됐다. 중심 사역인 서원에서는 좌우 건물지가 연이어 붉은 금당(金堂, 본존불을 안치하는 가람의 중심건물)과 큰 돌을 5단 이상 채워 넣은 깊이 1.7m 정도의 방형탑지가 확인됐다. 이 절이 탑 하나를 중심으로 금당과 그 좌우에 부속 건물을 거느린 구조임을 밝혀냈다.

주요 유물로는 국통명 비석편을 비롯해 꽃무늬가 선으로 새겨진 청동제 장식, 당초문·연화문 등이 새겨진 다량의 암·수



‘국통’ 명문 비석 조각

막새, 일방건물에서는 보기 힘든 귀면와(鬼面瓦, 도깨비 얼굴을 새긴 기와)와 금새기와 등의 특수기와를 비롯해 철제 초두(斗, 다리가 세 개 달린 긴 자루의 작은 술)와 쇠항아리 등이 출토됐다.

조사단은 흥전리에 있었던 사찰은 통일신라시대 국통이 머물렀으며, 화려한 기와로 장식한 건물이 대규모로 들어설 정도로 사세가 컸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석 받침 돌인 귀부는 이번 시굴 조사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현재 위치가 원래 자리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연구소는 “석탑복원을 시작으로 사지가 정비된다면 삼척 지역 불교문화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고려시대 간화선이 걸어온 길은?

보조사상연구, 10월 18일 간화선 계승 학술대회

고려시대 간화선 수행의 흐름과 계승 과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조사상 지눌 스님의 선사상 연구단체인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0월 18일 서울 법원사 대웅보전에서 고려시대 간화선 수행의 흐름을 짚어보는 제24차 국내 학술대회를 연다.

‘여말선초 보조선의 분화와 확산’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영성 동국대 교수가 ‘한국 간화선의 정통성 문제’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보조 지눌의 정도 부정의 진위’ 발표를 진행한다.

이날 자리는 고려 후기 보조선(善照禪)이 고려 후기 임제선과 같은지 다른지를

고찰하는 한편, 조선 후기 본격화된 법통설의 타당성도 따져보는 자리다.

고영성 교수는 주제성을 강조한 선사상의 입장에서 보조선과 임제선이 다르지 않음을 밝히며 오경후 교수는 보조 지눌 스님과 나옹 혜근 스님의 위상과 가치가 청허 휴정 스님의 제자들이 조선초 불교사를 재구성하며 평가절하했음을 주장한다.

박해당 박사는 조선초 거사들이 보조선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과 계승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치며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지눌 스님이 정도를 부정했다는 통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고찰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종전연구원, ‘전통불탑’ 학술대회

천태종 종전연구원(원장 이봉춘)은 11월 8일 오후 1시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한국 전통불탑의 양식과 신앙적 계승’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관문사 10층 옥불대보탑 조성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의 ‘경천사 10층석탑의 불교사적 의의’ △정영호 단국대 교수의 ‘원

각사지 10층석탑과의 비교 연구-조형을 중심으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경천사 10층석탑 16불회도(佛會圖) 도상 연구’ △권기현 위덕대 교수의 ‘불탑신앙의 성립과 전개’ 등이 발표된다.

이어 권탄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을 사회로 종합토론편도 진행될 예정이다. (02)3460-5227 노덕현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축 시

부처님(父天任)의 공덕 세세 생생 법다이 살아지이다 한때 절망 속에 전진 하며 무주상 인연 대중과 동방의 불(佛)이 되어 불(火)이 되어 강산이 돌고 돌아 무명의 어둠 날날이 깨어 지이다

신비한 불광(佛光) 법음(法音) 울려 희망의 닦을 올리고 탁세만행(濁世衽行)의 풍랑 헤치고 영혼의 물까지 목마를 채워주는 위대한 불꽃같은 행원(行願) 불(火)이 되어 지이다 나 그대 생명이라 부르렵니다.

불기 2555년 10월 2일

선농교단 우리불교초계종
종정 弘山 玄佛